대전디자인진흥원, 청년 일경험 우수사례 공모 '최우수상'

박소영 기자 | 승인 2026.11.16 20:13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청년들의 기업 실무경험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결과물을 실제 전시에 활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청년들의 기업 실무경험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결과물을 실제 전시에 활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 대전디자인진흥원 제공

대전디자인진흥원은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 프로그램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미래내일 일경험은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프로젝트형은 청년들이 팀을 구성해 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며 실무를 경험하는 방식이다.

진흥원은 2025년 하반기 처음 운영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사업을 맡았다. 올해는 청년 120명이 30개 팀으로 참여해 디자인과 광고·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과제를 수행했다.

대표 사례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진행한 '대전 재도전·혁신캠퍼스 전시 지원 프로젝트'다.

청년 3명은 8주 동안 재도전기업 3곳의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자료를 조사해 기업의 경험을 전시 콘텐츠로 제작했다.

'RE, RE'를 주제로 완성한 전시 패널과 그래픽은 스타트업 코리아 투자위크에서 선보였으며, 행사 종료 후에도 대전 재도전·혁신캠퍼스에서 활용되고 있다.

진흥원은 참여 청년들에게 면접 선발과 사전교육, 상담, 기업 점검,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했다.

오는 12월 4일 '2026 대전디자인페스타'에서는 성과공유회를 열고 프로젝트 결과 발표와 우수팀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을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기업은 필요한 전시 콘텐츠를 확보하고, 청년들은 밀착 멘토링을 통해 기획부터 현장 적용까지 경험하며 함께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가 남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